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7(土)	8(日)
	
구름 조금 1/13℃	맑음 1/13℃

News

- 수협도 개혁 칼바람 ②
- 광주女교수 의문의 피살 ③
- 김연아 '꿈의 200점' 도전 ⑭

Books

- 고양이의 사랑 아시나요 ⑧

Entertainment

- 애니영화 더빙 신애라 ⑦



- 아카데미 후보작 개봉 ⑩

Wellbeing

- 숙면이 보약입니다 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암 예방 효과 탁월 '천문동' 재배 성공 해남 박동인씨

10년 정성 하늘도 감동 '신비의 약초' 대량 재배

"10년 만에 '하늘의 문'이 열렸네요."
합초 연구가 박동인(57·해남군 해남읍·사진)씨가 도전 10년 만에 국내 최초로 신비의 약초인 '천문동(天門冬)'의 대량 재배에 성공했다.
'하늘의 문을 연다'는 뜻을 담고 있는 천문동은 스테로이드와 글루코시드, 아스파라긴 등의 성분이 대량 함유돼 폐의 열을 낮추고 유방암 등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다. 최근에는 피부미용 등에도 효능이 높음 것으로 입증되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한뿌리 60만원 호가

염생(鹽生)식물인 합초를 식용화한 공로로 2004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던 박씨는 지난해 천문동 재배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을 빛낸 CEO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씨가 천문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99년. 토종약초연구회로부터 재배를 제안받고 부터다.

박씨는 "합초 연구에 몰두하던 당시 토종약초연구회에서 마지막 남은 신비의 약초인 천문동 재배에 도전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면서 "당신만이 해낼 수 있다"는 말에 천문동 재배에 매달린 것이 벌써 10년이 됐다"고 말했다.
주로 서남해안 일대에만 자생하는 약초인 천문동은 받아들여 재배가 어려워 자연산을 채취하거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같이 어려운 천문동 재배에 도전장을 내민 박씨는 2000년 가을 해남 인근 야산을 수백 번에 오르내린 끝에 천문동 씨를 채취했고, 비닐하우스에서 6~12개월 동안 발아 과정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이 말라 죽거나, 발아가 되지 않았다.
박씨는 고민 끝에 천문동씨가 인삼씨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 인삼 씨 튀기기 과정과 합초 재배법 등을 접목해 2002

년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다. '대박'을 확신한 박씨는 해남읍 금강골 인근 1만 평 부지에 천문동씨를 뿌렸고, 지난해 가을 6년생 천문동을 첫 수확하는 기쁨을 누렸다.

천문동은 kg당 15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 탓에 주문 수확만 하는 데, 대량 재배 성공 후 지난해 11~12월 5천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씨앗 판매 수입도 짝잡

이 같은 성공 신화가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의 농가에서도 씨앗 구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해 씨앗 판매로만 3천만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박씨의 말이다. 박씨는 "천문동은 한 뿌리의 무게가 4~5kg정도고, 뿌리당 6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특히 진액, 약재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면 상품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공을 자신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파릇파릇 보리밭 뛰노는 동심들

새순이 파릇파릇한 청보리밭이 싱싱하다. 6일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들녘의 싱그러운 보리밭 웅덩이 위에서 새봄같은 아이들이 마냥 즐거워하며 뛰놀고 있다.

/강진=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민주당·전남도 'F1 지원법' 배수진

"임시국회 통과 안되면 사업 불투명" ... 민주당론 채택키로

민주당과 전남도가 '포플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민주당과 전남도는 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포플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 설명회를 갖고 법안통과를 위해 총력체제를 구축키로 했으며, 특히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혜영 원내대표와 서갑원 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우선 처리 법안에 지원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최인기 의원은 한나라당 입대 정책위의장, 유선호·박지연 의원은 한나라당 박종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을 각각 설득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또 특히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을 총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전남도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오는 2010년 첫 대회 개최를 앞두고 F1 지원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대회 추진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F1 대회는 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국가브랜드 가치의 제고와 관광·자동차산업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전남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원법 처리를 요청했다.

설명회를 주선한 최인기 의원은 "17대 때 만들어진 지원법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업 주도 부분을 조직위 주관으로 고치고 일부 국비지원을 받도록 한 개최권료의 경우도 전액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경주

장과 진입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만 일부 국비 지원을 받도록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지원법안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F1 지원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남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박 지사는 또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개최권료(3천430억원)는 로열티가 아니라 차와 선수의 항공수송료와 숙박비 등 개최 비용이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프랑스와 캐나다가 F1대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대회 주최 측에서 시설 낙후를 이유로 배제했다는 점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서갑원·김재균·김성곤·주승용·유선호·이낙연·전혜숙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코스피 1200 회복

미국발 혼동에 6일 주가는 오르고, 원화 및 채권 값도 상승해 금융시장이 '트리플 갭세'를 나타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2.38포인트(2.75%) 오른 1,210.26을 기록하며 약 한 달 만에 1,200 고지를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228.17로 마감했던 지난달 7일 이후 최

고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는 21.29포인트(1.81%) 오른 1,199.17로 출발해 1,2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결국 1,2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도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5.30포인트(1.42%) 오른 378.79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390.28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15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서7가 1041방 50
062-271-1114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국립 최대의 연륙도를 주는 광주MBC 문화탐방 상권입니다 www.kmbc.co.kr
"기초의 때까지 상품과 서비스가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062-226-6070
무안 - 상해(방콕) 직항! 062-226-6070

중국東方航空 062-226-6070